

# Contents

사업보고 ..... 3

발제1 ..... 9

성평등한 예산편성을 위한 성인지예산제도  
손영숙 \_ 경기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발제2 ..... 23

안산시성인지예산 및 결산서 모니터링 결과보고  
장미진 \_ 안산YWCA 부장

## 토론

나정숙 \_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현선 \_ 안산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  
이억배 \_ 안산시 예산과 계장  
서영주 \_ 안산시 가족여성과 계장

# 안산시 성인지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1부. 개회식

사회 : 장미진(안산YWCA 부장)

인사말 ..... 박성순(안산YWCA 회장)

## 2부. 토론회

사회 : 임주현(안산YWCA 사무총장)

발제1 ..... 손영숙(경기도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장)

발제2 ..... 장미진(안산YWCA 부장)

토론 ..... 나정숙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현선 (안산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

이억배 (안산시 예산과 계장)

서영주 (안산시 가족여성과 계장)

종합토론

## 사 업 보 고

### 1. 신청사업명 : 시민 참여형 성인지예산 제안사업

1) 사업수행단체 : 안산YWCA

2) 사업내용

① 모니터링단 교육 및 워크숍

- 성인지 관점에 대한 이해(관점전환의 사례 등)
- 성인지예산 개념 이해
- 분석워크숍 4회

② 모니터링사업 : 성인지 예/결산서 모니터링

③ 공무원 성인지 예산교육 : 사업담당 공무원 교육 2회

④ 시민참여형 성인지예산 과제발굴 워크숍 : 여성·노인·청소년 대상

- 주민참여예산 교육 : 3회
- 성인지예산의 이해 : 3회

⑤ 안산시 성인지예산제도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2. 사업목적

- ① 성인지예산에 대한 주민이해 확대 및 인식 제고
- ② 성인지예산 홍보 및 주민참여형 성인지예산 과제 발굴
- ③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을 통한 2016년 성인지예산 제안
- ④ 성평등(여성친화적)한 도시, 안산의 이미지 제고

### 3. 세부사업내용

1) 시민참여 성인지예산수립 기획회의

- 일 시 : 2015년 6월 15일, 11월 중 (예정)
- 장 소 : 안산YWCA 회의실 외
- 대 상 : 공무원(기획예산과, 여성가족과), 단체 및 기관(5명 내외)
- 내 용 : 사업내용 및 역할 토의  
분야별 사업제안 내용검토 및 평가

2) 성인지예산 교육 및 분석 워크숍

- 일 시 : 2015년 7월 20일 ~ 9월 30일
- 장 소 : 안산YWCA 교육실
- 대 상 : 지역활동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20명
- 내 용

구분	일시	내 용	담 당
교육	7/20	성인지 관점과 정책이해 ·관점 전환의 사례 ·사회통합을 위한 성인지정책의 필요성	조혜련 (젠더&다양성센터 대표)
	7/22	성인지 예산의 이해 ·지역에서의 성인지예산 모니터링 의의	임정규 (성인지예산 네트워크 사무국장)
워크숍	7/24	모니터링단 대상 모니터방법 교육	임주현 (안산YWCA 사무총장)
	8/5	모니터링 워크숍 1차(공동분석)	모니터링단 10명
	8/12	모니터링 워크숍 2차(공동분석)	모니터링단 10명
	8/19	모니터링 워크숍 3차(공동분석)	모니터링단 10명
	8/24~9/30	개별 모니터링 분석 및 자료 취합	개별 모니터 진행

3) 공무원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실무워크숍

- 일 시 : 2015년 7월 9일 ~ 10일 (2회)
- 장 소 : 안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대 상 : 성인지예산담당 / 사업담당 공무원 약 90명
- 내 용 : 성인지예산 교육  
예·결산서 작성 워크숍

4) 시민참여형 성인지예산 과제발굴 워크숍

- 일 시 : 2015년 9월 5일, 10월 27일, 10월 30일
- 대 상 : 청소년 · 여성 · 노인

내 용

- 강의1 : 주민참여예산의 이해
- 강의2 : 성인지 관점과 성인지예산의 이해

- 시민참여형 성인지 예산 과제 제안
  - 모듬 토론회를 통해 예산 과제 제안
  - 바람직한 성인지예산 선정 및 제안

5) 안산시 성인지예산제도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 시 : 2015년 11월 19일(목) 오후 2시
- 장 소 : 안산시의회 대회의실
- 대 상 : 시의원, 공무원, 단체, 기관, 전문가, 시민 등 60여명
- 내 용
  - 사 회 : 임주현(안산YWCA 사무총장)
  - 인사말 : 박성순 (안산YWCA 회장)
  - 사업보고
  - 발제1 성평등한 예산편성을 위한 성인지예산제도  
손영숙(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 발제2 안산시 성인지예산 및 결산서 모니터링 결과보고  
장미진 (안산YWCA 부장)
  - 토론 나정숙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현선 (안산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  
이억배 (안산시 예산과 계장)  
서영주 (안산시 가족여성과 계장)

#### 4. 기대효과

- 시민참여형 성인지예산서 분석과 과제 제안을 통하여 2016년 성인지예산서 수립에 기여한다.
- 성인지예산에 대한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작성오류를 보완하여 예산서 작성의 실효성을 높여 안산시 예산의 집행과 편성과정에 성차별적 요인을 개선한다.
-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통해 안산에 필요한 성인지예산 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의 계기를 만들고 성인지예산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여한다.

## 발제 1

### 성평등한 예산편성을 위한 성인지예산제도

손영숙 (경기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 성평등한 예산 편성을 위한 성인지 예산 제도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손영숙

## 목 차

1. 성인지 예산 제도 추진 현황
2. 성평등 제고를 위한 성인지 예산 제도의 과제
3. 지역 성평등 현황과 성인지 예산의 연계

# 1. 성인지 예산 제도 추진 현황

성인지 예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하여  
자원(예산)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를 변화시키는 일련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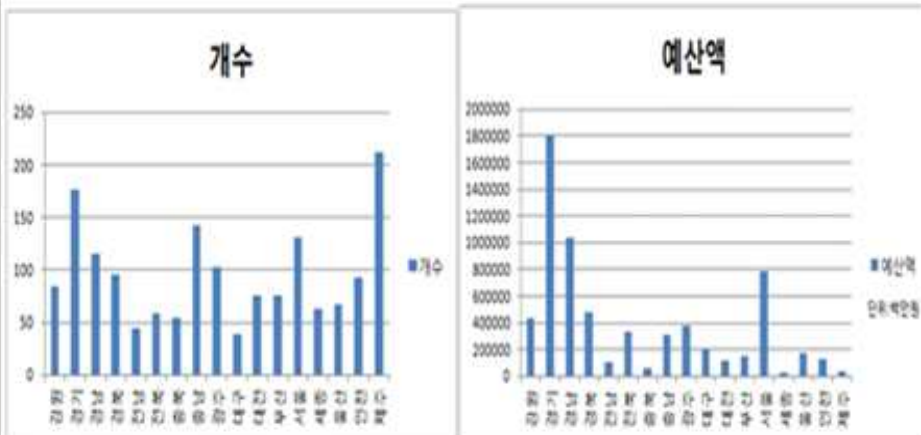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 (2011. 03. 개정)  
국가재정법 (2006. 10. 개정)

### 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 사업

대상사업	비 고
여성정책 추진사업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사업 -여성의 권익증진, 사회참여 확대 등 성 불평등 개선 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자치단체장 공약사업, 주력사업으로 성별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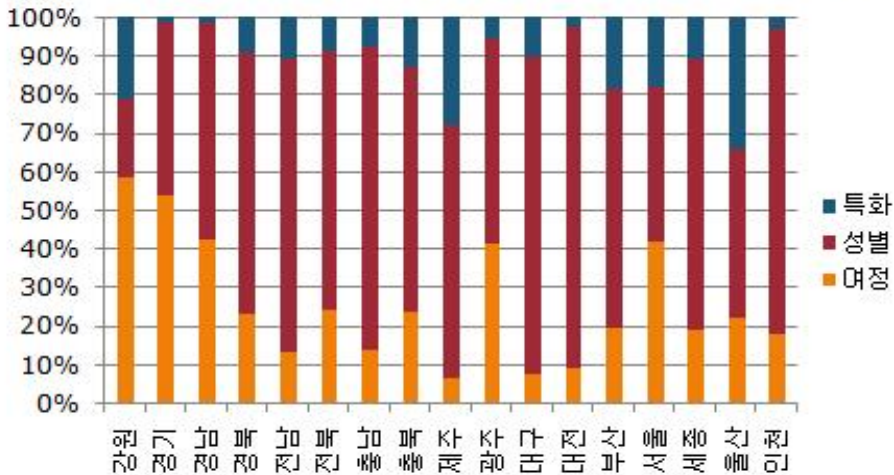
제외: 행정운영경비, 예비비 등

### 2015 광역지자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 현황



자료: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2015) 『지역을 변화시키는 성인지예산 사례』

## 2015 광역지자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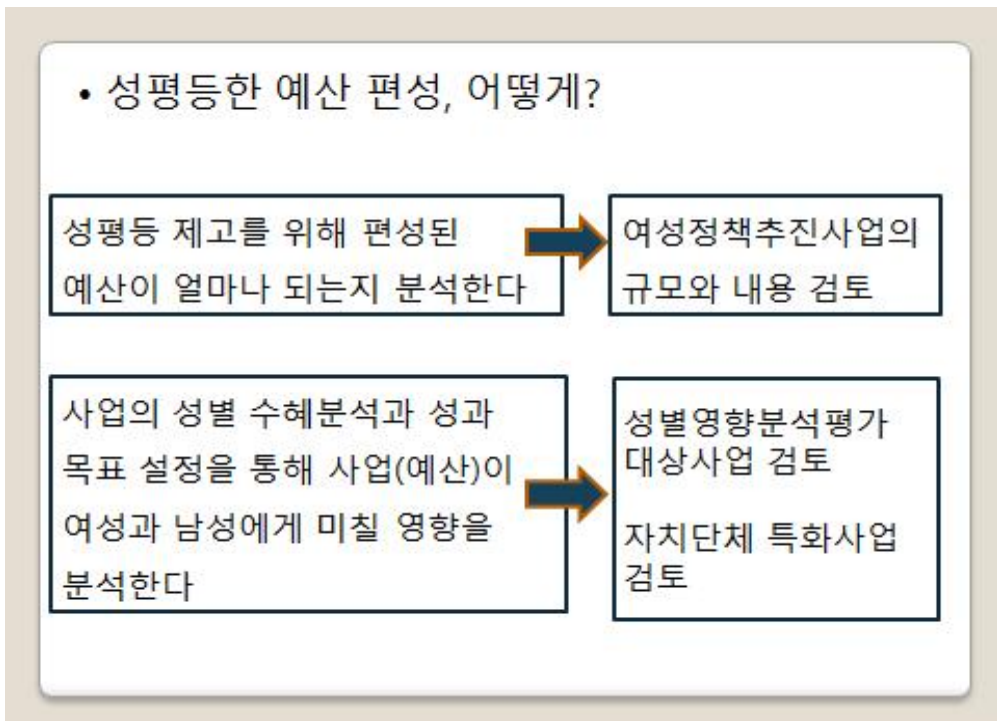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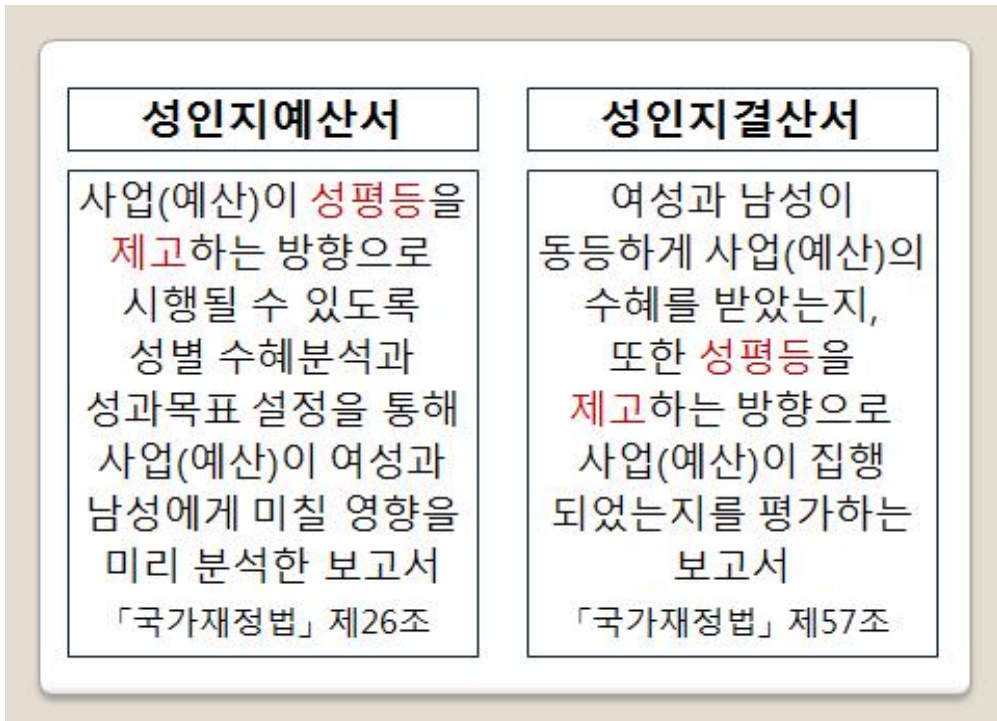
자료: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2015) 『지역을 변화시키는 성인지예산 사례』

## 안산시 성인지 예산서 작성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사업구분	2015 회계연도		2014 회계연도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총 계	141	81,708	115	203,227
여성정책사업	20	7,718	24	11,998
성별분석사업	97	50,792	87	190,164
자체특화사업	24	23,198	4	1,065

• 2015년 8.04%, 2014년 20.96%



## 2. 지역 성평등 현황과 성인지 예산의 연계

### 성인지 예산서 작성 항목

#### 기획감사관

I. 성평등 목표

II. 성인지 예산 편성 방향

III.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e-호조 자동입력)

IV. **실·국**별 성인지 예산서 : 실·국에서 작성

- 성인지예산 편성 방향, 총괄표, 사업별 총괄표

V. **부서**별 성인지 예산서 : 실·과에서 작성

- 성인지예산 편성 방향, 총괄표, 사업별 총괄표,  
**사업별 설명자료**

## 예산과

### I. 성평등 목표

### II. 성인지 예산 편성 방향

### III.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e-호조 자동입력)

※ 2016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기준 주요 내용

- 성평등 목표 수립 시 지자체의 성평등 지수 등 성평등 현황자료 참고
- 예산서의 성과지표와 성인지 예산서의 성과목표를 연계하여 성평등 목표 수립

## 경기도 성평등 현황과 개선과제

### •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

- 경제활동참가율과 임금 성비 개선 정도가 낮은 편으로 개선도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필요

(단위: 원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III-67] 경기도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표 값

자료출처: 『2014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2014)

## 경기도 성평등 현황과 개선과제

### • 여성 인권, 복지 영역

- 복지: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개선 필요
- 보건: 건강검진수검율 성비 개선 필요
- 안전: 모든 지표에서 성비 하락. 사회안전성 제고 필요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III-70] 경기도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표 값

## 경기도 성평등 현황과 개선과제

### • 성평등 의식, 문화 영역

- 가족: 주관적 지표의 성비 악화 추이로 성평등한 가족 문화 정책개발 필요
- 문화/정보: 수준자체는 높으나 순위 하락 추이로 도민의 여가 및 문화정책 개선 필요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III-73] 경기도 가족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표 값

## 경기도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비전

더불어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가는 경기도

정책  
목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성인지 정책  
실효성 제고

핵심  
분야

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및  
인권 강화

여성친화적  
복지 및  
건강증진

성평등 문화  
및 정책 역량  
강화

정책  
과제

- ▶ 정책대상별 여성경제활동 지원
- ▶ 고용주세별 일자리 창출 지원
- ▶ 여성경제활동 지원 추진체계 강화

- ▶ 보육지원 강화
- ▶ 돌봄의 사회적 지원 강화
- ▶ 일·가정 양립 기반 구축

- ▶ 폭력피해 여성 보호 및 지원
- ▶ 여성폭력 예방 및 안전사업 확대

- ▶ 여성친화적 복지 및 가족지원 확대
- ▶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지원

- ▶ 성평등 문화 확산
- ▶ 여성의 대표성 강화
- ▶ 여성정책 거버넌스 강화
- ▶ 성인지적 정책 운영 내실화

## 성평등 제고를 위한 사업 (예시)

성평등 정책 분야	사업명
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	-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 - 우수여성기업인 선정 및 제품전시전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 노인돌봄서비스
여성폭력근절 및 인권 강화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여성친화적 복지 및 건강 증진	-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성평등문화 및 정책역량 강화	- 성인지력 향상 - 여성주간사업 지원

## 성평등 목표 작성 예시

### 2015 경기도 성인지 예산서

- 양성이 평등한 사회기반 구축
  - 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여성의 대표성 제고, 성별영향 분석평가 활성화
- 여성의 경쟁력 강화 및 권익보호 증진
  - 여성취업지원, 여성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 여성인권 보호 강화
  - 여성노인, 여성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강화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 돌봄의 사회화
  -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성평등 목표 작성 예시

### 2015 안산시 성인지 예산서

- 성별격차 해소와 동등한 참여
  -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 성평등 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 일과 가족의 조화
  - 대상별 특성에 맞는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 돌봄 지원과 일-가족 양립 기반 구축
  - 여성, 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인권 보장

### 2015 안산시 성평등 목표

- 성별격차 해소와 동등한 참여
  -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 성평등 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 제6회 지방선거 시군의원 성별 입후보자 및 당선자 비율
  - 입후보자 여성비율: 17.14% (도 전체: 21.29%)
  - 당선자 여성비율 : 16.67% (도 전체: 22.07)
-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 여성비율: 11.2% (도: 9.2%)
- 각종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 32.8%

자료: 2013 경기도 시군별 성인지통계

### 2015 안산시 성평등 목표

- 일과 가족의 조화
  - 대상별 특성에 맞는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 돌봄 지원과 일-가족 양립 기반 구축
  - 여성, 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 여성 42.0%, 남성 72.3% (도 여성 50.2%, 남성 75.7%)
  - 비경활 사유: 여-가사 53.9%, 남-재학/진학준비 46.7%
- 다문화가구 비율 : 8.4% (도 전체 3.1%), 외국인인구 최다
- 한부모 가구 비율: 10.0% (도 전체 9.0%)
  - 한부모 가구 중 모자가정 : 76%
  - 저소득 한부모 가구 수: 도내 최다 (전체 가구의 1.2%)
- 만 0~5세 어린이집 이용률 : 59.4% (도 전체 51.8%)

자료: 2013 경기도 시군별 성인지통계

## 2015 안산시 성인지 예산서

-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인권 보장
- 안전관련 의식
  - 범죄피해 두려움: 여성 75.9%, 남성 57.1%  
(도 전체: 여성 52.8%, 남성 28.3%)
  - 지역 안전수준 만족: 상록구 여 49.85, 남 59.6%  
단원구 여 47.95, 남 55.0%
- 안전관련 취약성
  - 비도시지역/공업지역 면적이 넓고 단독주택 비율 높음
  - 인구 10만명 당 범죄발생 건수 높음

자료: 2013 경기도 시군별 성인지통계

## 3. 성평등 제고를 위한 성인지 예산 제도의 과제

## 성평등 제고를 위한 성인지 예산 제도의 과제

1. 지역 고유의 성평등 목표 수립
2. 지역 성평등 목표와 연계한 대상사업 선정
3. 사업유형에 맞는 다양한 성과목표 발굴
4. 지역별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과 모니터링
5. 성과주의예산제도, 주민자치예산제도, 성별영향 분석평가제도 등과의 연계
6. 지역 센터 기능 확대와 NGO 역량 강화

## 성평등 제고를 위한 성인지 예산 제도의 과제

1. 지역 고유의 성평등 목표 수립
  -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결과 활용
  - 지역별 성평등정책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활용
  - 기타 지역별 성인지통계에 기초한 지역 특성 참조
2. 지역 성평등 목표와 연계한 대상사업 선정
  - 성인지예산 편성 방향에 각 성평등 목표에 해당하는 과제 수 작성 (부산광역시에서 시행 중)
  - 사업별 설명자료(성평등 기대효과)와 부서별 총괄 표에 해당 성평등 목표 명시

## 성평등 제고를 위한 성인지 예산 제도의 과제

### 3. 사업유형에 맞는 다양한 성과목표 발굴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은 사업개선안과 연계
- 여성정책추진사업은 유형별 성과목표 가이드 제공

### 4. 지역별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과 모니터링

- 지역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보고서를 연도별로 작성하여 공개
- 연도별 분석보고서를 양성평등위원회, 지방의회 등에 보고

## 성평등 제고를 위한 성인지 예산 제도의 과제

### 5. 성과주의예산 등 다른 제도와의 연계

-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과 성평등 목표 연계
- 성과주의예산서의 성과목표와 성평등 목표 연계
- 주민자치예산에 지역 성평등 목표 반영

### 6. 지역 센터 기능확대와 NGO 역량 강화

- 지역의 성평등 수준과 의제를 고려한 성평등 목표 설정 컨설팅 및 성평등 목표에 해당하는 사업목록, 사업유형별 성과목표 가이드 등 제공
-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 및 모니터링에 지역참여 확대

## 발제 2

안산시성인지예산 및 결산서 모니터링 결과보고

장미진 (안산YWCA부장)



# 안산시성인지예산 및 결산서 모니터링 결과보고

장미진 / 안산YWCA 부장

## I. 들어가며

### 1. 취지 및 목적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성차별을 개선할 수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인지예산은 예산의 특정한 범주가 아니라 성평등한 자원배분의 과정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정부 성인지예산안 작성지침이 발표되었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0년 회계연도부터 시행되어, 2011년 3월 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2013년부터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성인지예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이해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제도가 운영되면서 성인지예산제도는 매우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전년도에 안산시 2013년 결산서, 2014년 예산서를 모니터링한 결과 성별격차에 대한 원인분석이나 성과목표와 같이 성인지예산의 가치와 성과를 반영하는 항목은 작성과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성평등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에 2015년에는 성인지 예산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하여 성인지적 관점과 예산서 작성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작성오류를 보완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예산서 작성의 실효성을 높여 안산시 예산의 집행과 편성과정에 성차별적 요인을 개선하여 안산시 전반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정책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통해 안산에 필요한 성인지예산 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의 계기를 만들고 성인지예산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 2. 모니터 방법 및 일정

안산시 성인지예산 및 결산서 모니터링은 2014년 결산서와 2015년 예산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성인지예산서 모니터링 방법은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주요 구성항목에 대한 적절성 유무를 하나하나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한 사업에 대하여 두 명의 모니터단이 교차하여 분석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모니터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내용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성인지예산서의 요구하는 방식에 맞추어 담당자들이 예산서를 정확히 작성했는지에 대한 과정과 둘째, 성인지예산서 분석내용이 실질적으로 성평등한 예산수립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모니터링단은 2014년에는 여성단체에서 주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구성하였으나, 2015년에는 지역에서 성교육강사나 주민참여예산 강사로 활동하는 시민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안산시성인지예산 사업의 내용을 모두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동일한 사업이라도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 약간의 판단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지역 활동가들 중에서도 이전에 성인지 이해교육을 구체적으로 받은 사람들로 구성하였고, 동일사업에 대해 두 명의 모니터단이 교차 분석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모니터를 위한 성인지예산 이해와 구체적인 모니터 방법에 대한 교육을 3차례 실시하고 모니터실습을 위한 공동워크숍을

3차례 진행하여 최대한 객관적 기준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본회가 진행한 성인지예산서 모니터링은 2014년과 마찬가지로 방법 설정의 문제와 모니터링단의 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충분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모니터링을 통해 2013년부터의 기본적인 안산시성인지예산서의 현황과 2014년 모니터링 이후 무엇이 변화되었는지 확인하는 계기와 이후 성인지예산서 작성과 활용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후 지속적인 연구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져 보다 나은 성인지관련 연구자료들이 만들어지고, 실질적인 성인지예산제도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모니터링 일정 및 내용

구분	일시	내 용	담 당
교육	7/20	성인지 관점과 정책이해 ·관점 전환의 사례 ·사회통합을 위한 성인지정책의 필요성	조혜련 (젠더&다양성센터 대표)
	7/22	성인지 예산의 이해 ·지역에서의 성인지예산 모니터링 의의	임정규 (성인지예산 네트워크 사무국장)
워크숍	7/24	모니터링단 대상 모니터방법 교육	임주현 (안산YWCA 사무총장)
	8/5	모니터링 워크숍 1차(공동분석)	모니터링단 10명
	8/12	모니터링 워크숍 2차(공동분석)	모니터링단 10명
	8/19	모니터링 워크숍 3차(공동분석)	모니터링단 10명
	8/24~9/30	개별 모니터링 분석 및 자료 취합	개별 모니터 진행

## II. 안산시 성인지예산 및 결산서 분석 내용

### 1. 안산시성인지예산서 현황

2015년 안산시 성인지예산서 현황을 살펴보면 141개 사업에 대하여 1,708백만원의 예산을 수립하였다. 이는 2014년 115개 사업에 대해 203,226백만원 예산을 수립한 것과 비교하면 사업개수는 26개 증가하였으나 예산은 121,519백만원 감소하였다.

2015년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여성정책 추진사업이 20건,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97건, 자치단체특화사업이 24건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68.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3년과 2014년에 비해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6배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치단체특화사업의 경우 시설건립사업이 10건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사업들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성인지예산서의 내용만으로는 성평등 효과가 적어 보인다. 그러나 이주아동청소년센터, 글로벌아동센터, 청소년문화카드 등의 사업은 안산의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주요하게 보여진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의 경우 2014년 사업개수가 87개에서 2015년 97개로 확대되었으나 예산은 190,164백만원에서 50,792백만원으로 139,372백만원이 축소되었다. 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보육관련예산(영유아보육료지원, 비장애아방과후 보육료지원, 보육정보센터 운영 등)과 기초노령연금사업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사업은 지원기준에 따라 대상이 선정되고, 선정된 지원대상 모두가 직접 수당을 받는 의무지출사업이다. 수혜의 조건이 너무 명확해 성별수혜분석을 통해 수혜율과 서비스 내용을 조정할 여지가 없어 전년도 모니터링시 대상사업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던 사업으로 2015년 성인지 예산사업에서 제외되었다.

[표1] 2013년/2014년/2015년 성인지예산서 사업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비교증감 (14년:15년)	증감률
	사업 개수	예산액	사업 개수	예산액	사업 개수	예산액		
여성정책 추진사업	18	12,276	24	11,998	20	7,718	△4,280	△35.67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업	54	146,418	87	190,164	97	50,792	△139,372	△73.29
자치단체 특화사업	4	932	4	1,065	24	23,198	22,133	2077.88
총 계	76	159,627	115	203,226	141	81,708	△121,519	△59.79

\* 성인지예산서 참조

## 2. 모니터링 주요 항목

모니터링 주요 항목은 성인지예산서의 경우 성별수혜 분석(사업대상자/사업수혜자), 성별격차 원인분석, 성과목표/지표, 성평등기대효과 4가지 항목에 대해 13개 소항목을 만들어 모니터링 하였다. 결산서의 경우 성과목표 달성, 효과분석, 자체평가 3가지 항목에 대해 6가지 소항목을 만들어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표2]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항목

구분	분석 항목	분석 소항목
예산서	성별수혜	적절한 대상자와 설정 및 통계 사용
		적절한 수혜자와 설정 및 통계 사용
		수혜를 대비 예산구분 작성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교 성별격차 확인
	성별격차 원인분석	성별격차와 연동한 원인분석
		성인지관점을 반영한 원인분석

구분	분석 항목	분석 소항목
예산서	성과목표	목표(지표) 설정의 타당성
		목표(지표) 남녀구분
		목표치 설정의 타당성
		성과목표에 따른 예산반영
	기대효과	성별격차 연계하여 작성
		성과목표 연계하여 작성
성평등목표 연계하여 작성		
결산서	성과목표	예산서의 성과목표 달성
	효과분석	예산서의 수혜를 변화(성별격차)
		전년예산서 대비 예산확대
	자체평가	결과 원인분석
		개선방향 성과목표 연계
		개선방향 성평등효과 연계

### 3. 예산서 및 결산서 모니터링 내용

#### 1) 모니터링 분야 및 사업 수

2015년 모니터링은 2014년 결산서, 2015년 예산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14년 결산서 사업은 예산삭감 등으로 인해 집행이 되지 않은 2개 사업을 제외한 여성정책사업 23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86개 자치단체특화사업 4개로 총113개이고, 2015년 예산서 사업은 여성정책사업 20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97개 자치단체특화사업 24개로 총141개이다. 사업내용별로 보면 자치단체특화사업이 2014년 4개에서 24개로 가장 많이 확대되어 안산시의 특색과 특징이 반영되는 사업의 예산이 크게 확대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모니터링은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사업 총 141개, 2014년 결산서 사업 11개에 대해 진행하였다. 그 중 2014년도 114개의 사업 중 104개의 사업이 2015년도 지속사업이다. 2014년과 2015년 지속사업의 경우 사업의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성인지예산서 수립이 실질적인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표3] 모니터링 분야 및 사업수

(단위: 개, %)

구 분	2014년 결산서	2015년 예산서	전체	퍼센트(%)
여성정책 추진사업	23	20	43	16.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86	97	183	72.1
자치단체특화사업	4	24	28	11.0
합 계	113	141	254	100

## 2) 예산서 모니터링 내용

### 가. 성별수혜

#### 가-1. 대상자 설정

대상자 설정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전체 대상범위를 규정하고 대상에 대한 통계수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상자 설정이 맞아야 수혜자 대비 성별격차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사업담당자가 대상자를 적절하게 설정했는지를 모니터링 한 결과 사업 대상자 설정이 적절다가 80.1%(113개)로 2014년 67.8%보다 약 12.3% 향상되어 사업대상자 설정의 정확도는 작년대비 많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업 대상자 설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19.9%(28개)로 2014년의 31.3%보다 약 1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설정의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대상자 자체를 잘못 설정한 경우가 92.8%, 통계수치를 잘못 기록한 경우가 3.6%로 나타났다. 대상자 설정이 잘못된 경우로는 체육관이나 공원처럼 다중이용시설의 대상자를 지역주민(월피동주민, 초지동주민 등)으로 한정짓는 경우, 인프라스성 사업의 대상자를 기관 실제 이용자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데 안산시민 전체로 설정하는 경우 등이다. 통계수치가 맞지 않는 경우는 통계출처는 올바르게 표기했으나 수치는 사업수혜자로 잘못 기록한 경우이다.

[표4] 사업대상자 설정의 적절성

구 분	2013사업수	2014사업수	2015사업수
적절함	54(71.1)	78(67.8)	113(80.1)
적절하지 않음	21(27.6)	36(31.3)	28(19.9)
무응답	1(1.3)	1(0.9)	-
합 계	76(100)	115(100)	141(100)

[표5] 대상자 설정이 적절하지 못한 이유

구 분	2013사업수	2014사업수	2015사업수
설정 잘못함	11(52.4)	12(33.3)	26(92.8)
통계수치 맞지 않음	2(9.5)	21(58.4)	1(3.6)
기타	8(38.1)	3(8.3)	1(3.6)
합 계	21(100)	36(100)	28(100)

## 가-2. 사업수혜자 설정

수혜자 설정은 사업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수혜를 받은 참가자에 대한 통계수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사업목적 및 내용과 연계된 수혜의 설정은 정확한 예산배분을 위한 중요한 포인트이다.

사업수혜자를 적절하게 설정했는지를 모니터링 한 결과 87.2%(123개)가 사업의 수혜자를 적절하게 설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4년 82.6%보다 4.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수혜자 설정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12.8%(18개)로 2014년 17.4%보다 약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혜자의 경우 사업의 실질적인 대상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인지예산서 작성 3년차가 되면서 사업대상자와 수혜자에 대한 구분능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혜자 설정의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사업의 내용과 무관하게 남녀 비율을 50:50으로 분리한 경우, 무인민원발급기처럼 접근연령의 제한이 있는 사업인데 안산시민 전체로 한 경우, 여성정책사업의 경우 남성참여자가 있음에도 수혜자를 0으로 표시한 경우 등이다.

[표6] 사업수혜자 설정의 적절성

구 분	2013사업수	2014사업수	2015사업수
적절함	65(85.5)	95(82.6)	123(87.2)
적절하지 않음	10(13.2)	20(17.4)	18(12.8)
무응답	1(1.3)	0	-
합 계	76(100)	115(100)	141(100)

[표7] 수혜자 설정이 적절하지 못한 이유

구 분	2013사업수	2014사업수	2015사업수
설정 잘못함	5(50)	9(45)	18(100)
통계수치 맞지 않음	4(40)	7(35)	-
기타	1(10)	4(20)	-
합 계	10(100)	20(100)	18(100)

### 가-3. 예산구분

예산의 구분은 예산이 수혜율에 비례하여 적절하게 배분되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다. 예산의 구분은 수혜자 대상 수에 따라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절하게 구분되어진다.

그래서 예산구분이 적절하다가 92.2%(130개)로 2014년 85.2%에 비해 7% 상승하였고, 적절하지 않음이 14.1%로 2014년 13.9%보다 6.1% 감소하였다.

예산구분이 적절치 않은 경우는 앞의 수혜대상자 수치가 잘못된 경우들로 수혜자의 오류에 따라 50:50 일괄 배분한 경우, 수혜자의 자격요건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예산인데 자동입력 시스템사용으로 수혜자 비율에 따라 그대로 나누어지는 경우 등이다.

[표8] 예산구분

구분	2013사업수	2014사업수	2015사업수
예산구분 적절	64(84.2)	98(85.2)	130(92.2)
예산구분 적절 않음	11(14.5)	16(13.9)	11(7.8)
무응답	1(1.3)	1(0.9)	-
합계	76(100)	115(100)	141(100)

### 가-4. 성별격차

성별격차는 사업 대상자의 남녀구분 대비 수혜자의 남녀구분이 균등하게 잘 배분 되었는가를 판단하는 항목으로 성별격차가 발생하면 격차원인을, 격차발생이 없으면 없는 이유를 분석하고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여성예산의 취약성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성별 예산배분을 조정하거나 전체 수혜를 증가하는 방식으로 대책을 제시토록 되어 있어 이후 사업예산 배분에 주요한 기준이 되는 항목이다.

성별격차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남녀 성별격차가 없는 사업은 2014년보다 32.4% 상승한 56.7%(80개), 성별격차가 있는 사업 중 사업대상자의 여성비율 보다 수혜자의 여성비율이 높은 사업은 2014년보다 22.4% 감소한 26.3%(37개), 사업대상자의 남성비율 보다 수혜자의 남성비율이 높은 사업은 2014년보다 10% 감소한 17%(24개)로 여성 수혜률이 남성 수혜률보다 약 1.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격차는 대상자와 수혜자의 격차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상자와 수혜자의 설정을 잘못된 44건의 경우와 여성정책사업처럼 대상자와 수혜자를 여성 100%로 설정한 6건의 경우에는 성별격차를 확인할 수 없어 성별격차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성인지예산 사업의 많은 분야가 여성정책사업과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복지대상자가 많은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방문보건사업이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돌봄이나 육아사업에서 여성 수혜율이 높은 것은 여성인력 활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여성에게 특정 성 역할이나 직업군에 집중되는 경향도 있어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남성 수혜율이 높은 각종위원회운영이나, 생활체육, 창업보육,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은 향후 여성수혜자 비율의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9] 성별격차 구분

구 분	2013사업수	2014사업수	2015사업수
성별격차 없음	13(17.1)	28(24.3)	80(56.7)
여성 수혜률 높음	45(59.2)	56(48.7)	37(26.3)
남성이 수혜률이 높음	18(23.7)	31(27)	24(17.0)
합 계	76(100)	115	141(100)

## 나. 원인분석

성별격차 원인분석은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설정과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기술하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원인을 분석함에 있어 성별격차와 연동하여 분석했는지,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분석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성별격차와 연동하여 원인분석이 이루어진 사례는 2014년 보다 5.7% 증가한 67.4%(95개)이고, 성별격차와 연동되지 않고 원인 분석이 이루어진 사례는 2014년 보다 4.8% 감소한 32.6%(46개)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분석했다는 답변은 2014년 보다 6% 감소한 57.5%(81개)이고, 성인지적 관점 없이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답변은 2014년 보다 6.9% 증가한 42.5%(60개)로 나타났다.

성인지예산의 취지가 수혜율의 성별격차를 확인하여 정책내용 및 예산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근거로 하여 마련한 대책은 사업 담당자의 의지가 반영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성인지예산의 집행과 사업성과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성별격차와 성인지관점을 고려하지 않고 원인을 분석한다면 정책 및 예산의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예를 들어 성별격차 원인분석의 경우 통계나 실무적 결과 등에 근거하지 않고 공무원의 단편적 시각이나 현상을 한, 두 줄로 정리하는 경우나 단순히 '여성노인의 기대수명이 늘어나서' 혹은 '남녀구분 없이 평등지원' 등 성별격차의 현상을 설명할 뿐 원인분석과는 무관한 기술을 하는 사례는 2014년 모니터링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2013년 76개의 사업 중 2015년까지 지속되는 사업은 43개인데 그 중에 7개와, 2014년 115개 사업 중 2015년 지속사업은 104개인데 그 중 21개에 대해 원인분석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는 사업의 내용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 원인분석에 대한 담당자의 고민이 부족하며,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10] 성별격차와 연계한 원인분석

구 분	2013 사업수	2014 사업수	2015 사업수	2013~2015 내용동일	2014~2015 내용동일
성별격차 연계	50(65.8)	71(61.7)	95(67.4)	6	17
성별격차 연계안함	25(32.9)	43(37.4)	46(32.6)	1	4
무응답	1(1.3)	1(0.9)	-		
합 계	76(100)	115(100)	141(100)	7	21

[표11] 성인지관점을 반영한 원인분석

구 분	2013 사업수	2014 사업수	2015 사업수	2013~2015 내용동일	2014~2015 내용동일
성인지 관점 있음	59(77.6)	73(63.5)	81(57.5)	6	15
성인지 관점 없음	16(21.1)	41(35.6)	60(42.5)	1	6
무응답	1(1.3)	1(0.9)	-	-	-
합 계	76(100)	115(100)	141(100)	7	21

## 다. 성과목표

### 다-1. 성과목표 지표 설정

성인지예산서는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연계성이 중요하다. 성과목표의 설정은 성별격차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이후 사업을 성평등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성과지표와 성과치를 제시하는 항목으로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의 개선과 사업집행 성과를 확인 할 수 있다. 성과목표 설정 항목에는 목표(지표) 설정, 목표내용 구성, 목표 남녀구분, 목표치 타당성, 예산반영을 소항목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성과목표의 지표설정을 적절하게 선택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적절하다는 답변이 81.6%(115개)로 2014년에 비해 3.2%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고, 성과지표 설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은 2014년에 비해 2.3% 감소한 18.4%(26개)로 나타났다.

2014년에 비해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부분은 다소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성과목표가 적절치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성별 수혜분석, 성별격차 원인분석과 일치되지 않는 성과목표를 설정한 경우 ② 성과지표와 무관한 성과치를 설정한 경우 ③ 성과지표 자체가 예산대비 과하게 설정된 경우 등이다.

둘째, 성과지표의 내용을 보면 이용자 수 확대가 68.8%(97개)로 가장 높고, 기타 18.4%(26개), 프로그램/교육 확대 5.7%(8개), 시설확대 4.9%(7개), 만족도 2.2%(3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2014년도의 획일적인 성과지표인 ~명, ~건, ~개, 만족도등으로 동일하게 제시되었던 부분이 2015년에는 여성위원 선정비율확대, 활동비 지원확대, 공청회 횟수 유지, 서비스 시간 확대, 위반건수 감소 등 다양한 성과지표가 제시된 것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셋째, 성과목표에 대한 남녀구분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남녀구분이 없다가 57.5%(81개),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가 33.3%(47개), 남성을 대상으로 한다가 9.2%(13개)로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에 비해 성별을 구분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비율이 약 8.6%증가한 것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비율이 11.6% 증가하여 성별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정책상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단, 성과목표 지표설정의 경우 남녀의 성별격차가 있더라도 원인분석을 통해 성별격차가 타당하다고 분석되는 경우는 지표설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지표의 남녀구분이 없다가 57.5%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여성 정책 사업과 같이 성별격차를 확인할 수 없는 사업과 다중시설 등이 포함되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12] 성과목표 지표 설정

구 분	2013사업수	2014사업수	2015사업수
성과지표 적절함	56(73.7)	90(78.4)	115(81.6)
성과지표 적절하지 않음	19(25)	24(20.7)	26(18.4)
무응답	1(1.3)	1(0.9)	-
합 계	76(100)	115(100)	141(100)

[표13] 성과지표 내용

구 분	2013사업수	2014사업수	2015사업수
이용자수	58(76.3)	78(67.8)	97(68.8)
프로그램/교육확대	3(3.9)	13(11.3)	8(5.7)
시설확대	3(3.9)	11(9.6)	7(4.9)
만족도	5(6.6)	7(6.1)	3(2.2)
기타	7(9.3)	3(2.6)	26(18.4)
무응답	0	3(2.6)	-
합 계	76(100)	115(100)	141(100)

[표14] 성과목표 남녀 구분

구 분	2013사업수	2014사업수	2015사업수
남녀구분 없음	50(65.8)	76(66.1)	81(57.5)
여성대상 목표설정	17(22.4)	25(21.7)	47(33.3)
남성대상 목표설정	9(11.8)	14(12.2)	13(9.2)
합 계	76(100)	115(100)	141(100)

## 다-2. 성과목표 수치 타당성

성과목표의 수치는 성별수혜분석과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대책을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수치를 설정하는 항목이다. 목표수치의 타당성을 묻는 질문에는 타당하다는 답변이 58.2%(82개),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이 41.8%(59개)로 2014년 대비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인지예산의 성과지표는 양적인 '증가'와 질적인 '개선', 공급량의 '유지'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고민 되어야 한다. 그래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준은 확대비율을 전년대비 매우 근소하게 제시하거나 예산의 증가나 감소와 무관한 양적확대나, 전년과 동일하게 제시한 경우이다. 이는 담당자들이 성과수치를 낮게 설정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성과에 도달하고자 하는 의도로 담당자들의 사업확대 의지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여졌다.

[표15] 성과목표 수치 타당성

구 분	2013사업수	2014사업수	2015사업수
목표치 타당함	41(54)	66(57.4)	82(58.2)
목표치 타당하지 않음	34(44.7)	48(41.7)	59(41.8)
무응답	1(1.3)	1(0.9)	-
합 계	76(100)	115(100)	141(100)

## 다-3. 성과목표 예산반영

2014년 결산서 대비 2015년 예산확대가 이루어졌는지를 묻는 질문에 확대되었다가 55.3%(78개), 동일 또는 감소하였다가 44.7%(63개)로 나타났다. 예산확대 사업 78개를 대상으로 성과목표와의 연계성을 묻는 질문에는 연계되었다가 79.5%(62개), 연계되지 않았다가 20.5(16개)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보다 예산의 확대와 연계성이 약 4%가량 확대된 것이다.

예산의 확대가 성과목표와 연계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판단기준은 성과목표 지표가 이용자확대, 교육 확대와 같이 예산의 확대가 필요한 경우이다. 그러나 예산확대가 전반적인 사업 확대에 따른 이유인지, 성별 격차 해소로 성평등에 기여한 것인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 예산은 대체로 증가되는 경우가 많아 예산확대의 주요 원인을 확인하는 것은 사업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표16] 성과목표 예산반영

구 분	2013사업수	2014사업수	2015사업수
예산 확대	42(55.3)	53(46.1)	78(55.3)
예산 동일 또는 감소	33(43.4)	61(53)	63(44.7)
무응답	1(1.3)	1(0.9)	-
합 계	76(100)	115	141(100)

[표17] 확대예산 성과목표와 연계

구 분	2013사업수	2014사업수	2015사업수
성과목표 연계	28(66.7)	40(75.5)	62(79.5)
성과목표 연계 없음	14(33.3)	13(24.5)	16(20.5)
합 계	42(100)	53(100)	78(100)

### 라. 기대효과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있어 미래에 발생가능한 성평등 기대효과를 전망하고 적절하게 기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성평등 기대효과는 사업에 대한 성별격차, 성과목표, 성평등 목표와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연계되어 사업이 집행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이다.

성별격차와 연계하여 기대효과를 작성했다는 답변은 2014년 보다 10.4%

증가한 58.2%(82개), 성과목표와 연계하여 작성했다는 답변은 2014년 보다 28.1% 증가한 75.9%(107개), 성평등 목표와 연계하여 작성했다는 답변은 2014년 보다 0.6% 감소한 71.6%(101개)로 나타났다.

성별격차와 연계성은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점에서 성별격차와의 연계성이 향상된 것은 사업담당자가 의도한 성과달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성과목표는 사업담당자가 설정한 지표에 대한 연계이며, 성평등 목표와의 연계도 성평등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포괄하여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 연계하여 작성하는 것에 크게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인분석과 마찬가지로 2013년 76개의 사업 중 2015년까지 지속되는 사업 7건 중의 5건과, 2014년 115개의 사업 중 2015년까지 지속되는 104개의 사업 중 16개의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와 내용이 동일하게 쓰여져 있었다.

[표18] 성평등 기대효과와 성별격차 연계

구 분	2013사업수	2014사업수	2015 사업수	2013-2015 내용동일	2014-2015 내용동일
성별격차 연계	40(77.6)	55(47.8)	82(58.2)	5	13
성별격차 연계 없음	35(21.1)	59(51.3)	59(41.8)	-	3
무응답	1(1.3)	1(0.9)	-	-	-
합 계	76(100)	115(100)	141(100)	5	16

[표19] 성평등 기대효과와 성과목표 연계

구 분	2013사업수	2014사업수	2015 사업수	2013-2015 내용동일	2014-2015 내용동일
성과목표 연계	56(77.6)	85(47.8)	107(75.9)	4	12
성별목표 연계 없음	19(21.1)	29(51.3)	34(24.1)	1	4
무응답	1(1.3)	1(0.9)	-	-	-
합 계	76(100)	115(100)	141(100)	5	16

[표20] 성평등 기대효과와 성평등목표 연계

구 분	2013사업수	2014사업수	2015사업수	2013-2015 내용동일	2014-2015 내용동일
성평등목표 연계	66(86.9)	83(72.2)	101(71.6)	4	13
성평등목표 연계 없음	9(11.8)	31(26.9)	40(28.4)	1	3
무응답	1(1.3)	1(0.9)	-	-	-
합 계	76(100)	115(100)	141(100)	5	16

### 3) 결산서 모니터링 내용

#### 가. 성과목표

성인지 결산서에서 주요하게 보아야 할 모니터 항목 중 하나가 성과목표의 달성이다. 성과목표는 성인지예산서에서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해 사업담당자가 분석을 통해 제시한 목표로 예산의 집행과 함께 사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표이다. 때문에 성과목표(지표) 항목을 제대로 작성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성평등의 효과를 점검하고 검토하여 예산편성과정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2014년 결산서 성과목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성과목표를 달성한 사업이 33.6%(38개)로 2013년 보다 13.8% 낮게 나타났고, 달성하지 못한 사업은 18.6%(21개)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예산서상의 성과목표 또는 목표수치가 결산서에서 변경되어 달성률을 확인할 수 없는 사업이 46.9%(53개)로 나타났다.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21개의 사업은 성과목표치가 적절한가를 묻는 질문과 연계된 것으로 예산대비 목표치가 과하거나 성과목표와 지표간의 연계성이 부족한 경우 등으로 성과목표 자체가 매우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고, 성과목표를 꼭 달성해야 한다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매우 약한 것

으로 판단된다. 특히 예산서와의 목표 불일치는 46.9%(53개)로 결산서자체만을 검토할 때는 성과목표를 달성한 듯 보이나 예산서와 비교하여 보면 결산서의 목표수치가 대폭 낮추어져 있거나, 성과목표 자체가 변경되거나, 성과목표나 목표 수치가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업담당자가 결산서 작성 시 업무 편의적으로 변경하였다고 판단되며, 이렇듯 성과목표와 지표가 가변적이라면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성과목표 및 목표치에 대한 정확한 설정과 제시한 성과목표의 실천을 강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21] 성과목표 달성

구 분	2013년사업수	2014년사업수
성과목표 달성	36(47.4)	38(33.6)
성과목표 미달성	39(51.3)	21(18.6)
예산서상의 성과목표와 불일치	미분류	53(46.9)
무응답	1(1.3)	1(0.9)
합 계	76(100)	113(100)

## 나. 효과분석

### 나-1. 수혜율 변화(성별격차)

수혜율의 변화를 통해 실질적인 성별격차가 줄어들었는지를 알아보는 항목으로 수혜자의 확대가 실질적인 성별격차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다.

2014년 총 113개의 사업 중 사업의 수혜자의 확대가 성별격차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은 35.3%(40개)이며, 17.7%(20개)는 성별격차에 변화가 없었다. 2013년과 비교하여 수혜자의 확대에는 큰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성별격차의 감소가 4.2% 줄어들었고, 성별격차 변화없음이 4.5% 증가하였다.

[표22] 수혜자 확대

구 분	2013년 사업수	2014년 사업수
성별격차 변화 없음	10(13.2)	20(17.7)
성별격차 감소됨	30(39.5)	40(35.3)
성별격차 확대됨	36(47.3)	53(47.0)
합 계	76(100)	113(100)

## 나-2. 예산확대

전년 예산서 대비 성인지예산서 사업의 예산확대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이다. 2014년 모니터링 결과 보다 예산의 확대된 사업은 9.2%감소한 60.5%(58개)로 나타났고, 예산이 동일하거나 감소된 사업은 2014년 보다 10.5% 증가한 48.7%(55개)사업이다. 그러나 확대된 51.3%의 사업이 전부 성평등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보다 예산이 확대된 주요 사업을 보면 청사보수, 어촌마을조성, 박물관건립, 공영유료주차장 현대화, 공공근로, 기초노령연금, 긴급지원 등 성별격차를 나타낼 수 없는 사업들이거나, 선정된 지원대상 모두가 수당을 받는 의무지출사업이 다수 차지하고 있었다. 그나마 성평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여성정책사업 중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아이돌보미사업, 성폭력피해자 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등이다.

[표23] 전년예산서 대비 예산 확대

구 분	2013년 사업	2014년 사업
예산 확대	46(60.5)	58(51.3)
동일 또는 감소	29(38.2)	55(48.7)
무응답(기타)	1(1.3)	-
합 계	76(100)	113(100)

## 다. 자체평가

### 다-1. 결과원인 분석

결과원인분석은 사업담당자가 결과에 대한 원인과 향후 개선방향을 정리한 내용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으로 정확한 원인분석이 이루어져야 적절한 개선방향이 제시될 수 있다.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이 잘 이루어졌는지, 개선방향이 예산서에서 제시한 성과목표, 성평등효과와 연계하여 제시하였는지를 모니터링 하였다.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 내용을 보면 원인분석이 적절하다는 답변은 2013년에 비해 11.4%감소한 42.5%(48개)로 나타났으며, 원인분석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답변은 2013년에 비해 12.7%증가한 57.5%(65개)로 나타났다.

내용을 살펴보면 앞의 성과목표, 성별격차 등의 분석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또는 반대로 원인을 제시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현상을 단편적으로 기술하는 경우 등이 있다.

[표24] 결과원인 분석

구 분	2013 사업수	2014 사업수
원인분석 적절	41(53.9)	48(42.5)
원인분석 적절 않음	34(44.8)	65(57.5)
무응답(기타)	1(1.3)	-
합 계	76(100)	113(100)

다-2. 개선방향 성과목표 연계

성과목표와 연계하여 향후 사업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는지 확인하는 항목이다. 즉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지 점검하며, 사업이 성평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과목표에 맞추어 제시되어야 한다.

성과목표와 연계해 개선방향을 제시했다는 답변이 2014대비 3.5% 소폭 상승한 52.2%(59개), 연계되지않았다는 답변이 47.8%(54개)로 나타났다.

성과목표와 연계되지 않은 사례를 보면, 성과목표와 무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거나,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여진다. 즉, 개선사항들이 대체로 '홍보를 강화'하고, '운영방식을 다양화하겠다' 등의 일반적 내용으로 기술되어 사업에 적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어 앞으로 보완해야할 점으로 보인다.

[표25] 개선방향 성과목표 연계

구 분	2013 사업수	2014 사업수
성과목표와 연계	37(48.7)	59(52.2)
성과목표와 연계 않음	38(50.0)	54(47.8)
무응답(기타)	1(1.3)	-
합 계	76	113(100.0)

### 다-3. 개선방향 성평등효과 연계

성평등목표에 따라 개별사업이 성평등 목표와 연계하여 이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이다. 성차별 개선효과에 대한 분석은 성인지 결산 분석의 핵심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성평등목표와 연계해 개선방향을 제시했다는 답변이 2013년 보다 8.4% 감소한 41.6%(47개), 연계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2013년보다 9.7%증가한 57.4%(66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지 예산과 연계되는 성평등 목표가 포괄적이어서 사업담당자들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이해를 갖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보니 피상적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어서 구체적인 개선방향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26] 개선방향 성평등효과 연계

구 분	2013 사업수	2014 사업수
성평등목표와 연계	38(50.0)	47(41.6)
성평등목표와 연계 없음	37(48.7)	66(58.4)
무응답(기타)	1(1.3)	-
합 계	76	113(100)

### Ⅲ. 결론 및 정책제언

#### 1. 결론

##### 1) 성인지예산서(결산서) 작성 및 분석과정의 적절성

2015년 성인지예산서 및 2014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설정, 수혜자설정 등 기본적인 자료에 대한 정리와 원인분석 및 성과목표 설정, 기대효과에 대한 분석이 2014년 모니터링 결과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 성별수혜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로 사업대상자 설정, 사업수혜자 설정, 예산구분을 정확하게 설정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본 항목에 대한 성별수혜 작성의 적절성 여부는 평균 86.5%로 2013년/2014년의 평균보다 7.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원인분석은 성별격차와 연계하였는지,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였는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본 항목에 대한 적절성 여부는 평균 62.4%로 2013년/2014년의 평균보다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모니터링 이후에도 여전히 성별격차의 현상을 설명할 뿐 원인분석과는 무관한 기술을 하는 사례는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다. 성과목표는 목표지표 및 목표치를 적절하게 설정했는지, 성과목표에 따라 예산을 반영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본 항목에 대한 성과목표의 적절성 여부는 평균 68.6%로 2013년/2014년의 평균보다 7.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과목표에 대한 양적, 질적개선에 대한 다양한 고민은 계속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기대효과는 성별격차, 성과목표, 성평등목표와 연계하여 적절하게 작성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본 항목에 대한 기대효과의 적절성 여부는

평균 68.5%로 2013년/2014년의 평균보다 1.4%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원인분석과 같이 2013년 76개의 사업 중에서 2015년까지 지속되는 사업 43건 중 7건에 대한 원인분석 내용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2014년 115개 사업 중에서 104개 지속사업 중 21개의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2015년 예산서를 살펴 본 결과 성별수혜 86.5%, 원인분석 62.4%, 성과목표 68.6%, 기대효과 68.5%로 예산서의 작성 및 분석의 평균 적절성은 71.5%로 나타났다. 그러나 항목별로 연계하여 분석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적절성은 다소 떨어져 각 사업별로 보면 성인지예산서의 작성과 분석의 적절성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모니터링 각 항목을 2013년/2014년과 비교해 보면, 대상자설정, 수혜자 설정, 성별격차원인분석, 성과목표와 목표치설정은 적절하게 설정 또는 분석되었다는 답변이 2015년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성평등기대효과와 성별격차와의 연계성은 2014년보다는 상승했으나, 2013년보다는 감소하였다. 성인지관점을 반영한 원인분석, 성평등기대효과와 성평등목표연계 항목만 2013/2014년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포괄적인 성평등목표 안에서 해당사업이 어떤 실질적 의미를 지니는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연계성을 갖는지에 대한 설정이 불분명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과 관련한 평균 적절성은 2013년/2014년 67.6%보다 3.9% 소폭 상승한 71.5% 이다. 이는 사업분석과 집행 등의 경험이 쌓이면서 작성의 기술이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 성인지 예산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별수혜에 따른 성인지적 관점의 예산서 작성과 분석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을 토대로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의도한 정책성과가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폭이나마 작성과 관련한 평균 적절성이 상승했다는 것은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의도한 정책성과가 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 이러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2) 성인지예산서(결산서)의 성평등 효과

성인지예산서 이행은 성인지결산서의 성과목표 달성, 성별격차 축소, 예산확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14년 결산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성별격차가 줄고 예산이 성평등하게 재분배 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2014년 안산시성인지 결산서의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성과목표 달성 33.6%(38개)이 2013년에 비해 13.8%감소하였고, 성별격차 감소는 35.3%(40개)로 2013년에 비해 4.2%줄어들었다. 예산의 확대는 51.3%(58개)로 2013년에 비해 9.2% 낮게 나타났다.

성인지예산서의 성과목표 수치가 타당하다는 답변은 57.4%(66건)이었는데 결산서상 달성율이 33.6%로 저조한 이유는 예산감소, 지역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미달성한 경우도 있겠지만, 결산서의 성과목표 자체가 당초 예산서와 다르게 변경되거나, 목표치가 대폭 낮추어져 있거나,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결산서상의 성과목표 달성율에 대한 신뢰도를 담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책환류를 위한 원인분석과 개선방향의 경우도 원인분석이 적절하다가 42.5%(48개)로 2013년 보다 11.4% 감소하였고, 성과목표와 연계한 개선방향 제시는 52.2%(59개)로 2013년 보다 3.5% 소폭 상승하였다. 성평등 효과와 연계한 개선방향 제시는 41.6%(47개)로 2013년 보다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015년 구체적인 정책개선의 방향제시가 가능한지 의문스럽다.

2013년/2014년 모니터링과 비교해 보면 성과목표와 연계한 개선방향의 제시만이 근소하게 상승하였을 뿐 이를 제외하고는 성과목표달성, 성별격차감소, 예산의 확대, 원인분석과 연관된 개선방향, 성평등효과와 연계한 개선방향 모두 감소하였다. 또한 현재의 결산서상의 목표조차도 당초 예산서와 달라 달성률이 성평등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사업의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와 연계하여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의 개선방향도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향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재함이 필요해 보인다.

## 2. 정책제언

### ○ 예산서 작성 실무 교육과 컨설팅의 체계적 지원 강화

성인지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환경적 여건을 체계화하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잘 이루어졌다는 답변이 평균 71.5%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격차에 대한 원인분석이나 성과목표(지표)와 같이 성인지예산의 가치와 성과를 반영하는 항목의 경우 점수가 더욱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미래의 발생가능한 성평등 효과를 전망하고 적정하게 기술하는 기대효과는 성별격차와의 연계나 성평등목표와의 연계성도 낮게 측정되어 있다. 이는 공무원들의 성인지적 관점과 예산서 작성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오류를 보완하기 위해 2015년에는 안산시 예산과와 함께 사업담당자 대상으로 자신의 사업예산서를 직접 작성해 보는 실무중심의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대부분의 사업담당자들은 대상자 설정, 성별격차에 대한 원인분석, 성과지표설정 부분의 작성을 가장 어려워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 직접적인 컨설팅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성인지관점을 반영한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실무중심의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교육이 지속되어야 하며, 전문가그룹에 의한 성인지예산 컨설팅과 교육지원 등의 체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성인지예산서의 효과분석을 위한 시의원들의 교육도 필요함은 매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주요 주체는 시의원들인데 지금의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시의원들의 문제제기는 사실 거의 없는 상황이다. 예산서와 결산서의 성평등 효과를 이해하는 과정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성인지예산서의 분석과정에 대한 시의원들의 이해가 없으면 성인지예산제도의 변화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지방의회는 성인지예산교육은 꼭 필요하며, 방식은 의회가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수립하여 진행할 수 있다.

## ○ 성인지예산 총괄 및 사업수행 부서 간 협조체제 강화

성별영향평가의 총괄부서가 여성가족과라면 성인지예산의 총괄부서는 재정을 담당하는 예산과다. 성별영향평가와 같이 성인지예산도 총괄부서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각 사업의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각각의 사업부서들이고 각 실국과 실과마다 총괄예산서를 취합하고 작성하는 몇 차례의 작업을 거쳐야함으로 부서 간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주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할 경우 서로 성인지예산서 작성 업무를 맡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성인지예산제도는 총괄부서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최선의 방안은 부서 간 협력과 연계를 통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지만 수평적 협력이 어렵다면 부서장의 의지를 통해서라도 협력여건을 조성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는 예산편성방향 설정

성인지예산제도는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제도이다. 따라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평등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시된 성평등 목표는 상당히 광범위하고 안산시의 여건 및 환경을 반영하는 노력이나 구체적 사업방향의 설정이 애매해 보인다. 그렇다 보니 아직도 사업담당자들은 성평등 목표에 대한 실질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성평등을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50:50이 되는 것, 또는 기회의 평등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성평등 목표와 각 실국 간 혹은 성인지예산사업 간에 연관성이 낮거나 동떨어진 예산편성의 방향으로 연결되어 진다.

예를 들어 각 실국의 예산편성방향 중 홍보물 배부 및 중개업 직무교육 실시로 균등한 사회참여 실현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청소년들에게 역사문화유적지 답사 기회 제공, 안산지역사회의 부패를 극복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반부패시스템 구축 등은 2015년 안산시의 성평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편성방향으로는 간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성인지 예산 편성으로 인한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기 위해서는 각 부서 재정운용의 방향이 성평등 목표와 연계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안산시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성평등 목표를 제시함이 필요하다. 또한 시의 성평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성평등목표의 수립 및 전략마련을 위한 합의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예산편성방향을 설정하고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 다양한 주체들간의 협력을 통한 환류점검

성인지결산제도의 운용 목적은 성불평등 문제를 분석하여 개선으로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대상사업의 예산집행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정책 및 재정운용이 어떻게 성별 격차를 줄여나갔는지 안산시의 의지와 노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성인지 결산을 통해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할 것이 기대되지만 이러한 환류의 기능은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성인지 예산이 자원배분에서의 보다 근본적인 변화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전문가·시민단체·언론·공무원 등 다양한 주체들 간의 연계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각 주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제한적 역할만을 수행하기보다는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성인지 예산의 이슈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인지 결산서의 평가결과 사업대상자 대비 사업수혜자의 성별 수혜격차가 10% 이상인 사업은 다음년도에 이를 고려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하였는지 등의 점검 시스템의 마련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이나 개선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영역의 주체들과 함께 연구하여 실효성 있는 성인지정책의 제안점 등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IV. 마무리하며

본 안산시성인지예산 및 결산서 모니터링은 단순히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 위주로 분석을 하다 보니 현장에서의 사업진행방식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모니터단의 주관적 생각이 개입할 수 있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2014년 모니터링사업이 단순한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것이라면 2015년은 2014년의 작성오류에서 기인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성인지예산서 작성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2016년 대상사업목록을 함께 검토하였다. 또한 예산과는 대상사업 선정시 여성정책사업이거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더라도 성평등효과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수혜의 조건이 명확해 서비스내용에 조절이 어려운 사업 등은 성인지예산사업에서 제외하는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는 성인지 예산서의 양적확대 보다는 성평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들을 대상사업으로 포함하여 질적 향상을 꾀하려는 긍정적 시도로 평가된다. 이러한 부분은 타 시군보다 먼저 성인지예산제도가 안전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산시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며 젠더 거버넌스 체계가 잘 이루어진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모니터링 내용을 정리하면서 예산서 작성에 대한 여러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모니터링과 사업전반에 대한 보완될 부분은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와 시의원, 공무원들의 제안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014년과 2015년 모니터링을 통해 부족하나마 성인지예산제도의 현황과 이후 개선방향등 지역에서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한 큰 틀의 제안은 이루어졌고 일정 부분 개선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번 모니터링을 토대로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공무원과 의회의 관심이 더욱 확대되길 바라며, 이후 지속적인 연구와 모니터링을 정규화하여 안산시 성인지예산제도가 생활밀착형 제도로 정착화 되어 효용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토론

나정숙(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현선(안산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

이역배(안산시 예산과 계장)

서영주(안산시 가족여성과 계장)